

SPORTS

‘파죽지세’ 광주FC, 최상위권 도약 노린다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지난 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구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10라운드 홈 경기에서 광주FC 강희수가 데뷔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13일 오후 2시 춘천 송암경기장서 강원과 맞대결

3승 4무 1패 승점 13 리그 3위...2위 김천과 1점차

프로축구 광주FC가 K리그1 최상위권 도약을 위한 승점 사냥에 나선다. 광주FC는 13일 오후 2시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경기장에서 강원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8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앞서 광주는 지난 6일과 9일 제주와 대구를 차례로 꺾고 시즌 첫 연승을 신고했다. 특히 대구전에서는 신인 강희수의 활약이 인상 깊었다. 전반 11분 헤이스가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열린 크로스가 상대 정우재의 발에 마쳐 흘러나왔고, 강희수가 이를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골망을 갈랐다. 올해 K리그 1 무대에 데뷔한 미드필더 강희수는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데뷔골을 터트리는 기쁨을 맛봤다. 또 전반 추가 시간에는 후반에서 김진호가 날린 톱패스를 아사시가 잡아 페널티박스 오른쪽으로 파고들었고, 정면으로 침투한 최경록에게 볼을 밀어줬다. 최경록은 다시 볼을 오후성에게 넘겼고, 오후성은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왼발 슈팅으로 추가 골을 뽑아냈고 광주가 2-1 승리를 따냈다. 그 결과 순위도 수직 상승. 3승 4무 1패 승점 13으로 리그 3위를 달성했다. 주말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표가 뒤바뀔 수 있지만, 광주가 상승세를 탔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특히 1위 대전(승점 16), 2위 김천상무FC(승점 14)와는 각각 3점·1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한 번의 승리만으로도 최상위권 진입이 가능한 상태다. 광주의 시즌 초반은 그 어느 팀보다 숨 가뻐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와 리그 일정을 병행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길 원했던 광주는 두 대회에서 모두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현재진행형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광주에 직전 홈 2연전은 고비로 여겨졌다. 이정호 감독이 지난 6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다이렉트 퇴장으로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음에 따라 공백이 예상됐다. 그러나 이는 광주가 철저한 시스템 아래 운영되고 있는 팀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각인시킨 기회가 됐다. 마철준 수석코치 대행체제에도 2번의 승리를 따낸 것이다. 여기엔 어떤 선수가 경기에서 나서도 광주의 색깔 및 철학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했다. 광주는 대구와의 경기에서 제주전과 비교할 때 선발 라인업에 상당 부분 변화를 줬다. 최후방엔 브루노의 파트너로 안영규가 아닌 변준수를 내세웠고 최전방엔 헤이스의 짝으로 문민서가 아닌 최경록을 기용했다. 특히 중원에선 핵심적인 역할을 도맡던 박태준, 이강현에게 모두 휴식을 부여하고 강희수, 주세종을 선발 투입했다. 과감한 결단은 정확한 맞아떨어졌다. 특히 리그 선발 데뷔전을 치른 ‘신예’ 강희수는 안정적인 패시력과 자족적인 드리블 능력을 유감없이 펼쳤고, 데뷔골까지 터트리며 합격점을 받기 충분한 활약을 펼쳤다. 덕분에 이번 강원(승점 7·리그 11위)과의 경기에서는 전반을 통째로 쉬며 체력 안배에 성공한 박태준, 이강현 조합을 볼 수 있게 됐다. 두 선수는 공수 양면에서 리그 수위급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에 광주는 어떤 상대와 맞붙어도 주도권을 잡고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닌 채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두 선수가 강원전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이날 경기를 통해 이정호 감독이 출전 정지 징계를 끝낸 후 복귀한다. 2경기 동안 이정호 감독의 역할을 대신한 마철준 수석 코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벤치에 무개감을 더할 예정이다. 이는 분위기가 좋은 광주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원인이자, 선수단 내에 긍정적인 긴장감이 조성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사령탑 공백 속에서도 상승세에 올라온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 강원을 꺾고 시즌 첫 3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한국 야구, 내년 WBC 일본·대만 등과 C조 편성

3월 5~17일 도쿄·마이애미 등서

한국 야구 대표팀이 202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일본, 대만 등과 함께 C조에 편성됐다. 10일(한국시간) 발표된 2026년 WBC 조 편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 호주, 체코, 대만과 함께 C조에 배정됐다. 올해 2월에 열린 WBC 예선에서 본선행 티켓을 확보한 절리꾼 대만이 같은 조에 편성돼 우리나라는 더욱 험난한 일정을 소화하게 됐다. 아시아 야구를 대표하는 한국, 일본, 대만과 호주가 같은 조에서 8강 진출을 다투게 되면서 C조 조별리그는 벌써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다. C조 조별리그는 2026년 3월 5일부터 6일간 일본 도쿄에서 열리며 상위 2개국이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C조 국가들의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IBC) 세계 랭킹은 일본과 대만이 1, 2위고 호주 12위, 체코 15위다. 우리나라는 6위에 올라 있다. 8강 토너먼트부터는 미국에서 경기가 이어진다. 미국 현지 시간 2026년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8강, 준결승, 결승이 차례로 진행되며 8강 4경기 가운데 2경기가 휴스턴에서 개최되고 나머지 경기장소는 모두 마이애미다. 우리나라는 8강에 오르면 이후 경기는 모두 마이애미의 론디포 파크에서 경기하는 일정이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최근 국제 대회 부진 탈출을 버리고 있다. 한국 야구는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냈지만 지난해 WIBC 프리미어12에서 조별리그 탈락했고, 2023년 WBC에서도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했다. 또 2021년 도쿄 올림픽 때도 4위에 그쳐 메달을 따지 못했다. 연합뉴스

2028 LA 올림픽, 골프 혼성 단체전 등 22개 종목 추가

2028년에 열리는 로스앤젤레스(LA) 하계 올림픽에 골프 혼성 단체전을 포함한 다양한 종목이 추가돼 ‘성평등 올림픽’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0일(한국시간) 온라인으로 집행위원회를 열어 LA 올림픽 세부 종목 목록을 확정했다. IOC 집행위원회가 확정된 LA 올림픽 메달 종목은 총 351개로 2024 파리 올림픽의 329개보다 22개 더 많다. 골프에 혼성 단체전이 신설될 것처럼, 성평등에 대한 더욱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축구는 여자가 16개국, 남자가 12개국 본선에 출전해 오히려 여자가 더 많고, 수구도 여자 출전국을 2개 추가해 남녀 모두 12개국이나 된다. 또한 복싱도 여성 체급을 늘려 남녀 모두 7개의 체급에서 대회가 열린다. 여기에 양궁과 육상, 체조, 조정, 탁구 등에서 혼성 종목을 추가해 여성의 참가 기회를 늘렸다.

기준에 남녀 개인전 2개 부문이던 골프는 혼성 부문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LA 올림픽 골프 종목 금메달은 2개에서 3개로 늘어났다. 올림픽에 골프는 112년 동안 치러지지 않다가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 부활했고 2021년 도쿄 올림픽, 작년 파리 올림픽까지 3차례 치러지면서 인기 종목으로 부상했다. 국제골프연맹(IGF)을 앞세운 주요 골프 단체들은 그동안 IOC에 단체전 종목 신설을 꾸준히 설득해왔다. 마침 LA 올림픽 개최국인 미국은 골프 세계 최강국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선 끝에 단체전 신설이 성사됐다. 그 결과 LA 올림픽 남자 종목 메달은 165개, 여자 종목은 161개, 혼성은 25개로 확정됐다. 올림픽 본선 출전 선수는 남자(5543명·49.5%)보다 여자(5655명·50.5%)가 더 많다. 연합뉴스

김용철 시체육회 의료협력위 위원, 우수선수 후원

장학금·용품 지원 약속 “도움의 손길 널리 퍼지길”

김용철 광주시체육회 의료협력위원회 위원이 장래가 촉망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수선수를 후원한다고 해 체육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10일 오전 11시 30분 시체육회관 점선실에서 전갑수 시체육회장, 김용철 시체육회 의료협력위원회 위원, 선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체육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수선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후원자인 김용철 위원은 장평성심치과 원장으로 지역 내 의료서비스 제공, 교도소 재소자 진료 등 다양한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민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치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용철 위원의 이번 후원은 일회성이 아니고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지속 후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선수를 위한 소정의 장학금 및 훈련용품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체육회는 이번 선수 후원이 후원자에게는 선물을 통한 후원의 가치를, 선수에게는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 후원의 손길이 이어질 수



광주시체육회는 10일 시체육회관 점선실에서 전갑수 시체육회장, 김용철 시체육회 의료협력위원회 위원(왼쪽), 선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선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있는 청신호로 평가했다. 또 선수가 안정적인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평소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철 위원의 선수 후원

을 환영하며, 선수에게도 값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 전국 최다 예산확보

15개 클럽에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국비 지원

광주시체육회는 광주지역 등록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서 광주시체육회는 지난달 기금(국비)을 받았고, 이달부터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체육회는 올해 17개 시도 중 인구 대비 가장 많은 5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광주에는 현재 68개의 등록스포츠클럽이 활동

중이다. 시체육회는 이 클럽들을 대상으로 순회지도 지원 신청을 받아 최종 15개 클럽에 13개 종목(배구·농구·축구·야구·소프트테니스 등) 15명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했다. 등록스포츠클럽은 지난 2022년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정기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종목(팀)별 스포츠클럽이다. 스포츠클럽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직접 관리 중이다. 각 클럽이 공

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일부 감면 등의 혜택이 있어 동호회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시체육회는 등록스포츠클럽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등록스포츠클럽은 지역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올바른 체육문화 확산을 위해 동호인들이 즐기는 스포츠클럽 활동이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등록스포츠클럽 확대와 체육지도자 순회지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비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